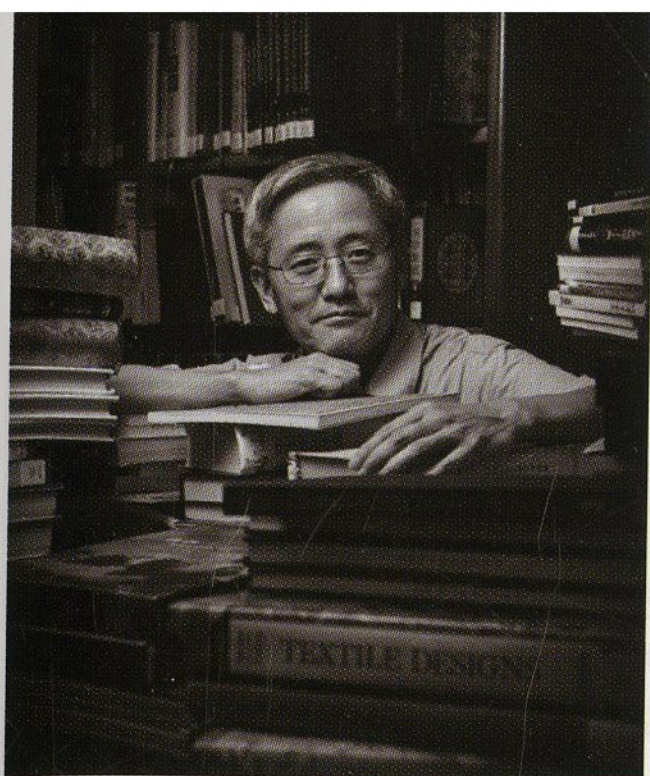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박물관장 김달진

몇

년 전, 한국 미술계의 대모 천경자 화백이 곧 타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때 일간지 기자들이 몰려간 곳은 국립예술자료원도 국립현대미술관도

아닌 이곳,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었다.

1970년대 패션지에 실린 천경자 화백의 토막 인터뷰 기사까지 샅샅이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국내외를 통틀어 김달진이 유일했다.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어요. 모으다 보니 자료가 되고 박물관이 되고 아카이브가 된 거지요. 전시회가 끝나면 미술가에게 남는 건 사진과 책자뿐이잖아요? 그런 중요한 자료들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게 안타까웠어요.” 18톤에 달하는 자료들이

시대별, 작가별로 뽁뽁하게 꽂힌 이 편집증적 서가는 미술을 사랑한 한 남자가 40여 년에 걸쳐 이룩한 한국 미술사의 보고다. 까까머리 고등학생 시절부터 검정 가방을 메고 인사동 화랑 거리를 순례했다는 그는 평생 발품 팔아 모아온 도록이며 책자를 대중에게 아낌없이 풀어놓았다.

미술 정보 사이트 ‘달진닷컴(daljin.com)’을 운영하고, 미술 정보지 〈서울아트가이드〉를 무가지로 발행하는 것도 같은 취지다. 많은 사람이 공유할수록 아카이브의 가치가 커진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아키비스트는 수집가가 아닙니다. 단순히 자료를 쌓아두고 보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해서 쟁점이 될 만한 2차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단순히 오래된 것이 귀한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해요. 아무리 사소한 자료라도 연대기로 살펴보면 새로운 가치가 생기거든요.” ‘사법권을 지닌 통치자가 사는 곳’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Arkheion’에서 파생한 아카이브(Archive)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하나는 영구 보존 자료를 수집해 보관하는 장소, 또 하나는 그런 곳이 소장 중인 보존 자료. 김달진이 집중하는 건 둘 다다. 한국 근현대 미술과 관련된 것이라면 팸플릿과 포스터는 물론 동인지부터 뉴스레터까지 가림 없이 모으는 한편 〈대한민국 미술인 인명록 1〉을 편찬하고 〈한국 미술단체 100년〉전을 여는 등 자료를 확대·재생산하는 일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가가 할 일을 개인이 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 해마다 10여 개의 비엔날레가 열리는 비엔날레 공화국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맡겼다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홍콩의 아시아아트 아카이브(AAA)처럼 최상의 미술 아카이브를 건립해 이 자료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